

#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예고...서민은 떨고 있다

### 대폭 오른 난방비·전기료...최강 한파에 사용량 늘어 부담 가중 자영업자·농어업인도 올상 "농사용 전기료 전년의 2배 넘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난히 추웠던 연초 난방 수요가 많았다는 점에서 2월에 받게 될 난방비 고지서에 대한 불안도 감지된다. 무엇보다 대폭 인상된 전기료가 적용된 관리비 고지서도 함께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정용 난방과 전기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부담도 늘지만, 코로나19로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고물가로 삶이 팍팍해진 자영업자들에게는 급등한 난방비가 더 가혹한 실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역시 크게 오르면 농업과 양식업 등 종사자가 많은 전남지역 농어업인들도 위기에 처했다.

◇2월 난방·전기료 폭탄 고지서 날라올까=지난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동주택의 m<sup>2</sup>당 평균 난방비는 지난해 12월 기준 126원으로, 전년(96원)보다 28.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공동주택의 난방비는 42원에서 72원으로 71.4%나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 새 실질적으로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자체가 1.5배 이상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8555만 GJ(기가줄)로, 2021년 12월(7673만 GJ) 대비 11.5% 증가했다. 또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4% 올랐다.

산업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견줘 작년 12월에 1.54배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2월 사용한 난방비가 아니다. 올해 1월 사용한 난방비를 비롯해 전기요금까지 관리비 고지서의 공공요금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광주·전남에는 폭설과 함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 12월보다 1월 추운 날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난방 수요가 증가해 이에 따른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난방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폭탄도 예고돼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공동주택 m<sup>2</sup>당 평균 전기료는 543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484원보다 12.2% 올랐다. 전남지역도 467원에서 545원으로 16.7% 늘었다. 지난해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료가 kWh당 19.3원이 인상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kWh당 13.1원 급등,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가뜩이나 올해부터 전기료가 추가로 오르는 데다, 최강 한파가 찾아온 탓에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 사용까지 늘었다가 가정하면 전기사용량이 대폭 늘었을 것으로 전망돼 전기료 폭탄 요금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가뜩이나 어려운데-자영업자·농어업인 죽을 맛=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자영업

자들은 최근 고물가로 고정비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난방비에 부담이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이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인상은 이 높다.

특히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자 취약계층과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과 달리, 자영업자에 지원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이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에서 삼겹살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63)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적자를 감수하면서 겨우 버텨왔는데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너무 가파르게 올리는 것이 아니냐"며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원자재값 폭등과 잦은 이상기후, 농산물 수급 불안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지역 농어업인들도 전기요금 인상에 울상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12.3원 정액 인상됐고, 농사용(감)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까지 인상됐다.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을 13.8%에 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어업인들의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올해부터 농사용 전기요금도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11.4원 더 오른다.

실제 한국전력의 '지역분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호수는 1만3756호로, 전년 말(8246호)보다 66.8%(5510호) 급증했다.

장흥군 관산읍 송촌리에서 6만6115m<sup>2</sup>(2만평) 규모 벼농사를 짓는 권영식(55)씨는 "눈에 물을 퍼 나르는 펌프에 쓰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1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는 전년의 2배 넘는 수준"이라며 "2년 전 면세유를 쓰는 데 900만원이 들었는데, 지난해에는 2300만원이 나갔다. 갈수록 농사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삼성전자, 매출 300조 돌파에도 웃지 못했다

### 반도체·스마트폰·가전 등 부진 지난해 영업이익 43조3766억...전년비 15.99% 줄어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가전 등이 총체적인 부진에 빠지며 '어닝 쇼크' (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3766억원으로 전년보다 15.9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302조2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9%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3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이익은 55조6541억원으로 39.46%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매출 기록에도 웃지 못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4조30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95% 줄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조2913억원을 18.6% 밑도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 대에 그친 것은 2014년 3분기(4조600억원)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70조4646억원과 23조8415억원이었다.

작년 상반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으나 하반기 들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며 세트(완제품) 소비와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분기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를 담당하던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매출 20조700억원, 영업이익 2700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매출 26조100억원, 영업이익 8조8400억원)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96.9% 급감했다.

통상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60~7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이 고꾸라진 탓에 충격이 컸다.

이달 초 잠정실적 발표 후 증권가에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눈높이를 4000억~8000억원대로 낮춰 잡았지만 여기에도 미치지 못했다.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이다.

메모리 분야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영향 속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실적이 대폭 감소했다.

메모리 업황이 역대 최악의 침체에 직면한 가운데 시장의 감소 기대에도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에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시장 약세가 당장 실적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올해 시설투자(캐팜스·CAPEX)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콘퍼런스콜에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GAA 공정의 경우 3나노 1세대 공정은 안정적 수율로 양산하고 있으며 2세대 공정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광주 경제 다시 기지개 켤 수 있도록"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신설

SGI서울보증은 1일 광주금남로지점(북구 금남로 136)을 신설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광주·호남지역 점포를 통합 관리하는 '광주호남본부'를 신설했다. 이번 지점 신설로 광주지역에는 상무지구 광주지점을 포함해 모두 2개 지점을 운영하게 된다.

광주지역 영업점들은 IMF 외환위기 사태 등을 거치면서 통·폐합되기도 했다. SGI서울보증은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사태 이후 광주 지역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지점 신설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지점을 구도심인 금남로에 두기로 했다.

올해로 54주년을 맞는 SGI서울보증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보증잔액 420조원, 총자산 10조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종합보증회사로 꼽힌다.

기업간 각종 계약을 보증해주는 이행보증보험부터 서민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금보장 신용보증 등 다양한 상품으로 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점에서는 보험청약 상담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 각종 확인서 발급 등 보증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광주지역과 기업·서민에 대한 밀착 보증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광주 미래 6대 핵심사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상의 서울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 인기

### 10년간 13만명 이용...이용객 맞춤 회의시설·사무공간 주요

서울 용산역에 마련된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누적 이용객이 1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1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라운지 이용자 수는 13만5504명을 기록했다.

지난 한해 라운지 이용객은 1만4865명으로 전년(9373명) 대비 58.6% 급증했다. 또 회의실 이용 건수도 전년(770건) 대비 51.8% 증가한 1169건으로 늘어나는 등 라운지를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북 라운지는 광주상의가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개소 10년째를 맞았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3개 광역지자체와 9개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전남·전북지역 기업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라운지 이용률이 증가한 것은 이용객들의 수요에 적합한 회의시설과 사무공간 등을 갖춘 게 주요했다. 분석이다.

서울 용산역 4층에 위치한 비즈니스 라운지는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갖춘 회의실 3곳과 사무·휴게공간 등은 물론 업무용 PC와 복합기 등이 설치돼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광주상의가 라운지 이용객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대다수가 라운지 이용에 '만족한다'(98.7%)도 답했다. 또 라운지 직원 서비스 역시 99.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비즈니스 라운지가 시·공간적 효율성이 높아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에게 판로 개척, 매출 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실 및 라운지 이용을 위한 예약은 홈페이지(www.gj-jnbiz.or.kr)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2-796-0007. /박기용 기자 pboxer@



삼성 비스포크, 북미 시장 공략  
삼성전자는 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 북미 최대 규모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3'에 참가해 친환경 맞춤형 가전을 대거 공개한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직원들이 전시장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중기 제품 흡소핑 판매 도와드립니다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참여 기업 모집...3월 3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TV 흡소핑(흡연소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흡소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광주 5개사, 전남 8개사 등 중소기업 총 13개사다.

1일부터 3월3일까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판매희망 상품의 브로셔 및 카탈로그, 제품 인증서 등을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TV흡소핑 채널 '흡연소핑'을 통해 4월부터 11월까지 일주당 1회 50분간 생방송으로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한다.

흡연소핑 방송 입점 수수료는 광주시와 전남도에 시 일주당 1500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업체는 판매 수수료와 택배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자체와 함께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5.08(-25.39)
↑ 코스닥	740.49(+1.87)
↑ 금리(국고채 3년)	3.325(+0.054)
↑ 환율(USD)	1231.90(+4.50)